

이종권 '미주한국불교' 편집장
"불자들 성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포교사의 역할"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9월 5일) · 주간

제961호 2013년 10월 9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장아함경〉

스스로 자신의 안을 관찰하라.
성냄과 원한의 근원이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내라.

폭로·헐뜯기·괴문자… 선거악습 재현 '눈살'

34대 총무원장 선거도 특정 후보 겨냥 비방 이어져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이전 선거와 같은 폭로와 상호 비방전의 폐해가 재현돼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내부 고발로 포장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런 허위 사실 유포는 유력 후보인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에게 집중돼 있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기호 1번)에 대한 사회법 제소 등으로 멸빈 징계를 받은 정한영(성호 스님) 씨는 자승 스님의 출마 선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승 스님의 승적 등을 공개하고 폭로전을 시작했다.

이후 정 씨는 SNS와 보수 인터넷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과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선동했다. 최근에는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전국 교구본사에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승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즉각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으나 발간 직후 정 씨는 출판사를 폐업해 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기호 4번 장주 스님과 적광 사미(본래 법명 운광)도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주 스님은 10월 2일 종책발표회 자리에서 자신의 소설 〈동토의 조계사〉를 배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중인 폭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가상의 스토리를 붙여 놓았다.

또한 불특정인이 자승 스님의 의혹을 보도한 〈신동아〉9월, 10월 호를 무작위로 배포해 자승 스님 선대위가 이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 선대위 대변인 일감 스님은 "후보 스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비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응하지 않는 것은 네거티브한 '이전투구'를 할 이유가 없어서다. 비방과 폭로가 아닌 종책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의 승적에 대한 허위 사실도 괴문자를 통해 두 차례 유포됐다. 괴문자 배포가 흔히 범죄에서 사용되는 대포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결국 보선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괴문서 유포자를 잡기 위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보선 스님 선대위는 "소위 대포폰은 불법도박장운영자, 상습도박자,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인터넷 사기범이나 무엇을 은닉해야하는 범죄자들의 도구다. 총무원장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교사한 것이 누구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청정승가 문화와 공명선거를 해치는 파렴치한 해종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보선 스님 선대위는 불법행위자는 물론 이를 교사한 자도 조사를 벌여 처벌해 줄 것을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95차 중앙종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참석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개회되지 못했다.

장주 스님, 적광 사미 등 대놓고 자승 스님 공격
보선 스님 관련 괴문자 선대위 법적 고발 시행

勢 싸움위해 종회 열고 참석 않자 상호 '디스전'
휴대폰 문자 서비스 통한 종책 알리기는 참신해

선거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유력 후보 간 세력 싸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은 10월 1일부터 5일 간의 회기로 제19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보선 스님 측 종회의원 30명의 발의로 열리게 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자승 스님이 현직 총무원장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총무원장 공명선거의 건'이 올라왔다.

이에 반발한 자승 스님 측 종회의원들은 등원을 일제히 거부했고, 결국 제195차 임시회는 개회를 하지 못한 채 유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회기를 채우고 폐회됐다.

이에 대해 보선 스님 선대위는 "의혹들의 안건을 호법부로 조사 이관하고 '34대 공명선거의 건'도 본 회의서 폐기키로 했다. 그럼에도 자승 스님 선대위 소속 스님들은 혹시라도 회의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질 것을 걱정해 임시회 개회를 막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자승 스님 선대위는 "공명선거를 가장해 종법이 정한 총무원장의 자격마저 시비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그 자체로서 초유의 일"이라면서 "종회의 유회는 공정한 선거를 염원하는 종도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맞불을 놨다.

다만 두 진영에서 감성 마케팅을 적용한 문자 메시지로 종책 알리기에 나선 것은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진 조계종 선거전의 새로운 선거문화로 부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력과 폭로전이 아닌 종책선거 대결을 촉구하는 종도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이번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해달라"며 "종도들의 마음과 의지를 금권과 권력이 아닌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종책을 통해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567돌 한글날 특집



한글날에 신미대사 찬탄하는 이 없네

속리산 복천암에 모셔진 신미 스님의 진영. 한글 창제의 주역에 스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설가 정찬주 씨는 신미 스님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속리산 복천암 월성 스님을 만나 신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다.

월성 스님은 "신미 스님은 범어와 티베트어를 통달했다. 훈민정음은 범어의 모음과 자음, 소리글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사회는 신미 스님을 너무 모른다. 이는 실록을 기록하는 유생들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 9, 31면



새롭게 조성된 잠실 불광사 전경. 중창불사를 진행한지 8년만에 완공됐다.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로 불광사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광사, 제2의 도약 '바라밀 횃불' 재점화

10월 13일 중창 불사회향… 19~20일 국제포럼 개최

도심포교의 효시 불광사가 신축 법당을 준공하면서 제 2의 도약을 준비한다. 중창불사를 선포한 지 8년 만이다. 불광사는 이를 계기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불교를 로드맵삼아 현대에 걸맞는 불광을 만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불광'은 이미 불교계에서는 브랜드화 된 지 오래다. 탄탄한 존립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전개해왔던 교육, 출판, 포교, 복지, 장례 사업 등 다양한 활동 덕분이다. 1974년 광덕 스님이 발행한 월간 〈불광〉이 모태가 된 불광사는 당시 새로운 불교를 갈망하던 불자들의 주도로 불광법회가 창립되면서 이어진 불광법당 건립운동의 결과다.

2면에 계속

조계종 전통문화글꼴 '석보체' 개발

10월 8일 '불교와 한글' 학술대회서 일반에 공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전통문화글꼴 '석보체'를 개발 10월 9일, 한글날 무료 배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0월 8일 567주년 한글날을 기념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한글'의 관계를 조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석보체를 공개했다.

석보체는 석보상절(보물 제523호) 글꼴 원형을 바탕으로 했으며 1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대중들을 찾는다. 조계종 문화부는 "석보상절(1449)은 세종25년 한글창제 이후 가장 먼저 반포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최초의 한글 불서다. 석보상절을 원형으로 한 석보체의 개발은 우리 문화사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석보체 개발의 의의를 밝혔다.

전통문화글꼴 '석보체' 글꼴포맷은 윈도우 OS는 물론, 맥킨토시 OS에서 사용 가능한 인쇄용 글꼴로 트루타입(TTF), 오픈타입(OTF)이며 '석보체 보통'과 '석보체 가는' 총 2종의 글자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조계종 홈페이지와 네이버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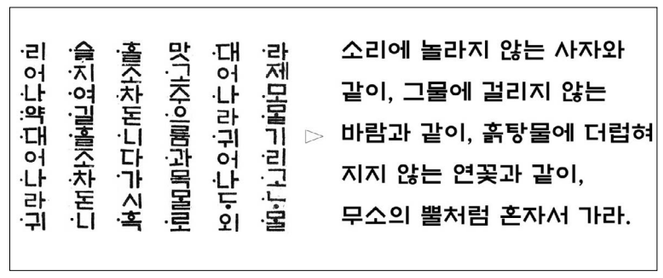
이번 '석보체' 개발은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단 로고타입과 심볼(삼보륜) 개발 경험이 있는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라피연구소(안상수 소장, 전홍익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됐다.

안그라픽스는 "원문의 세로쓰기 글씨를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가로쓰기에 맞게끔 개선했다"며 "현판용 및 표지 글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석보상절 옛 글자 개발과 간경도감체, 인경체, 부모은중경체 등 불경 언해본 글꼴 개발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모은중경체를 통한 본문 활용 글꼴 개발로 좀더 대중화된 글씨체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조계종은 "이는 단순히 전통문화 글꼴 개발 뿐 아니라 전통문화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시키고, 활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
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제모물기리고노물
대어나라귀어나닝외
맛그추으룸과묵몰로
홀조차돈니다가시혹
슭지여길홀조차돈니
리어나약대어나라귀

사진 왼쪽은 석보상절 원문체, 사진 오른쪽이 조계종이 개발한 전통문화글꼴 '석보체'

961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중간 판세는
템플스테이 가치 평가 세미나
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발언 파문

시방세계 5
조계종 '일본 고찰 순례' 연수 현장



신행 6
천고마비 계절, 불교 강좌 소개
청소년 힐링 위한 전시회

마음·명상 27
명상수행의 방향과 전망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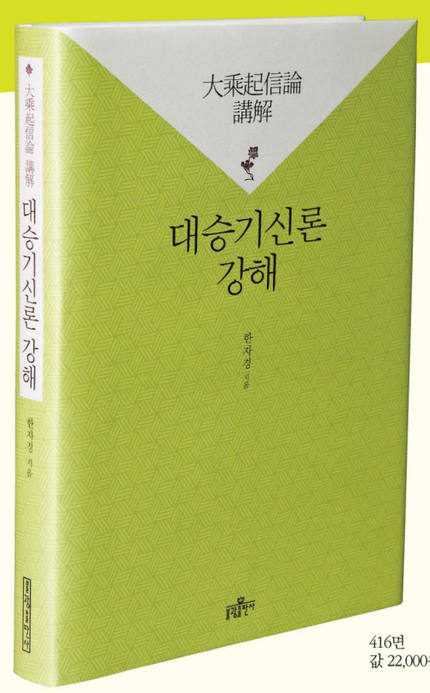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치밀한 구성,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로
중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며
대승(大乘)의 대의(大義)를 논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韓慈鏡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한트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제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칸트와 초월철학』, 『지아의 탐색』, 『지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칸트 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21자(字)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등이 있다.



한자경 지음

416면
값 22,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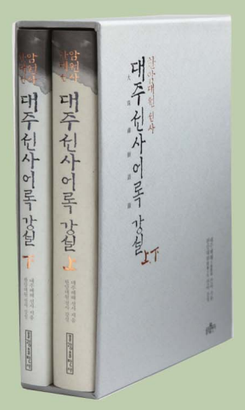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8월 이전에 판매된 29권의 『대주선사어록 강설(上·下)』을 새 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불광출판사 (02-420-3200)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